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8.02.(제3765)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모든 것을 맡기라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말지니

언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네

크든 작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네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영혼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리라.

- 베티나 반 바에렌베르흐 (Bettina Van Vaerenbergh)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10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 입 레 송... 347장(1,3절)...다 같 이
※ 예배의부름.....집 레 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
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
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 86:6-7)

※ 경 배 찬 송..... 23장 다 같 이
※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여기셨음에도 그
부르심 따라 살지 않고 외면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과 나눔의 열매 맺
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 교 독 문... 63(시편145편)...다 같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
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 영 광 송..... 5장 다 같 이

이 천지간 만물들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 도.....김영미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 묵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 찬 예 식.....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집 레 자

구 약 | 이 사 야 43:1

신 약 | 누 가 복 음 19:1-10

찬 양.... 주님은 기쁨....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 나무에서 내려와

꽃으로 피어나다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 복 의 선 언.....담임목사

※ 후 주.....반 주 자

※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단추기도회 START ON

- 제 6 남선교회 주관 -
오후 2시 사회: 조규성 권사

조용한기도 다 같 이
찬 송 309장 다 같 이
기 도 이평식 장로
성 경 봉 독 ... 시편42편 1-11절 ... 이성호 권사
찬 양 회 원 일 동
증 언 김선아 목사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소 식 권오진 목사
축 도 권오진 목사

다음 주 : 목장별 목장모임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8	영 아 부	10
주 일 2 부 예 배	278	유 치 부	13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3	유 초 등 부	24
목 장 모 임	219	중 · 고 등 부	25
수 요 성 서 연 구	52	청 년 부	17
수요실시간방송예배	10	예 수 소 망 반	27
금 요 성 령 집 회	47	생 명 의 삶	방학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27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714	합 계	116

현 금			
주 일 현 금	1,679,000	감 사 현 금	1,080,000
교회학교현금	187,900	선 교 현 금	140,000
월 정 현 금	3,670,000	특 별 현 금	100,000
십 일 조	14,970,000		
합계 21,796,9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디도서 강해
오석만 목사

여선교회 특별성회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라’

일시 : 8월 5일 수요일
(오전9시50분 - 오후5시30분)
강사 : 백은실 사모(말씀심는교회)
장소 : 대예배당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추기도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요성서연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요성령집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 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8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선옥 구용연	김진태 이미옥 이재화 홍석은 오정규 조은지
안내위원	이혜순	
강단헌화	(이성호 강숙희)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막힌 길에서 기막힌 길로”

구약 사무엘상 22:1-2

신약 고린도후서 4:7-10

설교 : 권오진 목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어찌지 못하는 '막힌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 애썼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사방이 벽으로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시련,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미래의 벽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곤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다윗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자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지독한 시기와 추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신실한 친구 요나단과도 작별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방 땅 블레셋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숨어 들어간 곳은 어둡고 축축한 '아들람 굴'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왕궁의 삶은 끝이 나고, 인생의 밑바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막힌 길에서의 탄식과 절망

인생의 길이 막히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깊은 탄식과 절망입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홀로 갇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가노라” 외쳤던 담대함은 간곳없고, 차가운 굴 바닥에 엎드려 밤새 울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아들람 굴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 시편 142편을 보면 그의 절망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시편 142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나님, 나는 원통합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할 곳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막힌 길에 서게 될 때 터져나오는 솔직한 탄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이 닫히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 내가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느끼는 상실감,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영적 어두움이 다윗을 짓눌렀습니다. 다윗은 영웅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이 막힌 길 앞에서 몸부림치며 탄식하던 한 아픈 영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쉽게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질그릇 같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막힌 길을 뚫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느끼는 상실감과 고립감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깊은 탄식으로 밀어 넣습니다.

막힌 길에서 '기막힌 길'의 발견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방의 모든 문이 막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막힌 길'을 발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 4장 7-9절입니다.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두운 굴속에서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질그릇 같은 자신을 감싸고 계신 '보배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1-5절을 봉독해 보실까요.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곤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막힌 길에서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배이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 없으나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몸부림 끝에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7-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7.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환경이 바뀌어서 찬양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굴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품을 찾았을 때, 그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꺼졌을 때,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힌 길에서 기막힌 길을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었고, 막힌 굴은 새벽을 깨우는 은혜

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굴속으로 오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곳이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성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막힌 길에서 내 힘을 빼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막힌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람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읽어보실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처음에 다윗 개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상처 입은 이들과 지 말아야 하니 아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아들람 굴에 모인 400명은 세상에서 버려지고 깨어진 질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다윗과 함께 그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을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막힌 길이 주님의 기막힌 길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어둡고 축축한 굴은 '치유와 연합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람 공동체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세상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훈련받을 때, 훗날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사무엘상 2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막힌 길이 주님의 기막힌 길로 반전되는 현장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입니다.

아현중앙교회에게도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바로 목장입니다. 목사인 저도, 목자분들도, 모두 주님의 기막힌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 주신 사람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삶과 신앙을 나누고, 아픈 일과 기쁜 일을 함께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막힌 길에서 주님의 기막힌 길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기막힌 길을 찾은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정예 군사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을 이끄시는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모임도 열심히 모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막힌 길에서 기막힌 길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사방의 문이 막혀 "하나님, 나를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며 아들람 굴 같은 탄식의 자리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막힌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명을 끄시고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사방이 막혔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찬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지체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혼자 있으면 어두운 굴이지만, 지체들과 손을 잡으면 기막힌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막힌 반전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권오진 조고은) 서지수 (강정훈 황인선) (구본수 송명희) (김기석 나영임) 김미광 (김주인 김춘강) (김철희 이후남) (배운덕 최영숙) 서태희 (송재용 홍영기) (안대형 최미숙) (조상현 김현숙) (조순형 백문희) (강용국 노복순) (권원자 이소영) 김예린 김은미 김은순 (류기운 송현숙) 류한아 (박영식 정명자) (박재훈 김보라) (배덕천 김유임 성진) (백건호 박영옥 백수예) 신경희 신영애 양명숙 양용자 (오성안 조삼순) 우철주 유은애 (이명렬 최성애) 이성수 이용환 (이활 김미영) 임명숙 장균복 (장만섭 고순문) (장영재 강정희) 정옥자 (채의병 문정은) 홍정순 홍정자

월 정 헌 금 (김성수 주현순) (조영익 태성희) (고영천 임선영) (권영만 최명희) 김연옥 김진숙 (김진테 이마옥) (김치년 홍주연) (김태환 임선희) (박상근 차용분) 박정미 박정숙 박주희 박희 (심영관 문미영) 엄영숙 윤인숙 (이남규 이은선) 이은숙 이희숙 (임현정 권소운) 전부일 차정옥 홍순옥

감 사 헌 금

(박범택 윤옥희) :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소서.

(배운덕 최영숙) :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들 때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강정희 :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셀리나, 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백건호 백현애 백문희) :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산소에 잘 다녀왔습니다.

송주영 : 모든 식구 건강하고 각자 맡은 바 일을 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송현숙 : 하나님만 믿고 구하며 의지합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이진경 : 응답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순옥 :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공자 :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 명 :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선 교 헌 금 오혜리 (임현정 권성호) 총여선교회(위클리프)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첫단추 기도회 : 제6남선교회 주관으로 드리며, 특송연습이 오후 1시 30분,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을 위한 '손잇기 중보기도' : 로비층에 전시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6년도 2학기 장학생 후보 신청접수 안내 :
1) 대상 : 아현중앙교회 교인 및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신청 가능 대상자(교회 홈페이지-소식/교제-아현중앙소식)
2) 제출기간 : 9일(주일) 오후 3시까지 도착 분
3) 신청 및 문의 : 교회 홈페이지, 오석만 목사
- 여선교회 특별성회 : 5일(수) 오전 9시 50분 - 오후 5시 30분,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주제로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강사: 백은실 사모) 1층 로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회비: 1만원)
- 전교인수양회 참가신청 : 9월 5일(토) ~ 6일(주일) 가평우리 마을에서 "위드(WITH)2026"라는 주제로 있으며, 8월 9일(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회비 : 2만원)

■ 모임안내

- 제7남선교회 야외예배 : 오늘 오후 4시 서오릉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장례 : 송영미 권사께서 27일(월) 별세하셨습니다.
- 감사 :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후원해 주신 장로회, 서태희 조순형 장로, 유은종 권사, 송대현 오수운 집사, 총여선교회, 8여선교회, 9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국내선교)를 후원해 주신 장로회, 총여선교회, 9여선교회, 서태희 김수미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교직원 휴가 : 오석만 목사(8/7 ~ 8/13)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

중고등부	7.31(금) - 8.2(주일) (국내선교)
청년부	8.21(금) - 8.23(주일) (국내선교)
여선교회	8.5(수)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9일, 23일(주일)
- 나눔콘서트 : 30일(주일) 오후 1시, 대예배당

■ 금요성령집회(8월 7일)

찬양	익투스 찬양단
설교	권오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8월 9일)

대표기도	이평식 장로
대표기도	강승균 집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4초원
- 다음 주 : 3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 | | | |
|---------|-----------------|--------|-------------|
| • 원로목사 |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 소속목사 |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
| • 부담임목사 |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 남기정 정영준 |
| • 수련목회자 | 송호준 | • 성가지회 | 김정희 김병일 |
| • 전도사 | 박지연 | • 반주 |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
| • 교육전도사 | 서지수 | | 황영진 김수빈 |